

# 23년 만에 새 터전... 중기부, '세종시대' 본격 개막

내일 이사 완료, 모든 업무 가능  
청사밖 건물, 최소 3년 더부살이  
이후에도 청사 입주는 '불투명'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세종시대'를 연다.

96년 당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으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시작해 98년 대전정부청사로 이전한 지 23년만에 대전을 떠나 세종시에 새롭게 터를 잡으면서다. 중기부로 격상된 뒤로는 4년만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음부즈만(차관급)이 세종시 이전을 놓고 중기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날부터 장관실, 차관실,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운영지원과 업무를 비롯해 오는 15일까지 부처내 모든 업무를 세종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13일에는 창업벤처혁신실, 14일에는 소상공인정책실, 감사



중소벤처기업부가 입주하는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기부

관실 그리고 15일엔 대변인실과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업무 재비를 마무리지으면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9일부터 시작한 이사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예정한 14일까지 이사가 모두 끝나면 15일부터는 부처내 모든 업무를 세종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가 쓴 이삿짐은 5톤 트럭 160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가 세종시에 터를 잡은 건물은 정부세종청사 공간이 아닌 민간건물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6층이다. 500명에 가까운 중기부 직원들이 이 건물 약 9000㎡(2700여평)를 사용한다. 중기부 입주 건물과 청사내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문화

체육관광부가 비교적 가깝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옮겨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기부 입주 건물 바로 옆인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에 들어서있다.

다만 중기부는 상당기간 정부세종청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건물에서 더부살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금 건물에서 최소 3년 이상은 있어야 하지만 이후에도 청사로 들어갈 기약이 없는 상태"라고 귀뜸했다.

이런 가운데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세종시로 이전을 앞둔 지난달 21일, 허태정 대전시장 등 지역 대표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별행사를 가졌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되는데 대전시민들의 많은 응원이 있었다"며 "중기부가 태어난 곳은 대전임을 잘 알고 있다"고 대전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중기부에 앞서선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긴 바 있다.

한편 중기음부즈만이 세종시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차관급인 중기음부즈만은 중기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지만 중기부가 지원과 운영을 담당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음부즈만은 8월 중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하지만 당사자는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박주봉 중기음부즈만은 "이전(하라는 것)은 중기부 입장이고 현재 청와대,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총리계도 (이전 불가 입장을) 건의한 상태"라면서 "조직과 예산 없이 경제부처와 기관에서 인원을 파견받아 꾸리고 있는 조직 특성상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규제 개선을 주업무로 하는 중기음부즈만 업무 특성상 국회 상임위와의 접촉 빈도가 높고, 각종 협회·단체의 애로 해결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로의 이전은 '쌍뿔맞다'는 게 중기음부즈만 입장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구인난'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잇는다

중기부-중기중앙회-중진공 등  
매달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선정  
연봉 2700만원 이상 등 충족해야  
만 15세~34세 구직자 누구나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이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찾기에 나선다.

12일 이들 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일자리 불일치(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이달의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청년 매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기관간 협력은 지난 5월 체결된 교육부·고용부·중기부·중기중앙회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인활동 중인 우수 중소기업의 채용공고에서 청

년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를 선별해 청년 구직자와 연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달의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매달 구인활동을 하는 '참 관장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올라 있는 기업들의 채용공고 가운데 ▲연봉 2700만원 이상 ▲정규직 ▲경력무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선별한다.

선별한 일자리 및 기업정보는 '참 관장은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인력애로센터, 워크넷, 잡코리아에서 별도 전용관과 팝업창 등을 통해 제공한다.

만 15~34세(군필자는 최대 만 39세) 청년 구직자는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인력애로센터, 워크넷, 잡코리아의 인력풀에 등록해 '이달의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와 희망직무를 고려한 일자리를 추천받거나 직접 구직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선별된 채용정보를 올린 기업에게는 각 플랫폼 전용관에 채용정보가 무료등록되며 잡코리아 인재풀 열람권 및 채용공고별 맞춤 인재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매달 '이달의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채용동향 설명회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 중소기업 지원협·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중진공 및 고용정보원에서도 기업인력애로센터 누리집과 워크넷에 전용 채용관을 신설하고, 채용정보 제공, 인재·구인기업 추천 등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기보, 경남도·농협은행·경남은행과 지역균형뉴딜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경남에서 지역균형뉴딜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기보는 12일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 농협은행, 경남은행과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왼쪽 세번째부터) 최영식 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최홍영 경남은행장, 정윤모 기보 이사장이 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 소진공, 스타벅스와 중년층 재기 돕는다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  
이달 30일까지 모집... 130명 선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중년층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추가로 나섰다.

소진공은 스타벅스와 함께 중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및 매장운영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해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민간협력 프로그램인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만 35세 이상의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이달 30일까지 온라인(<http://hope2021.or.kr>)으로 신청 가능하며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교육생을 최종 선발한다. 모집 인원은 130명이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서울 및 부산지역 스타벅스 교육장에서 커피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지식, 고객 서비스, 위생·품질 관리, 매장운영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3일간(16시간) 받게 된다.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40만원, 취업에 성공(타 사업장 포함)하면 6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생에게는 스타벅스 내부채용 절차를 거쳐 바리스타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6월 중소기업부와 스타벅스가 체결한 '자상한 기업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사명 바꾼 LX하우시스 첫 브랜드 광고 선보여

LX하우시스가 사명 변경을 끝내고 새롭게 출발하면서 'LX Z:IN(LX지인) 인테리어'만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광고 캠페인을 펼친다.

LX하우시스는 배우 전여빈을 신규 모델로 발탁하고 지난 9일부터 'LX Z:IN 인테리어' 키친·바스 제품 소개를 내용으로 한 신규 광고를 선보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승호 기자

## 기정원, 혁신제품 공공시장 진입 지원

혁신성·시장성 등 평가해 선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연구개발(R&D)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관로 지원을 위해 8월9일까지 '20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모집한다.

12일 기정원에 따르면 이 제도는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혁신성과 공공성이 우수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부문

과수의계약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공공시장 진입을 돕고 있다.

기정원은 8월 중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12월까지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성공적으로 끝내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 대상이다.

/김승호 기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최재형 “대한민국 밝히는 길 뚜벅뚜벅 갈 것” 대권도전 공식화 /사진 뉴스스
- ▲ 홍준표, 정책 꺼내 들었다... 부처축소·의원감축·징병제폐지 제시

- ▲ 이재명, 사흘 만에 후원금 15억... “4기 민주정부 만들 것”
- ▲ 경선 컷오프된 양승조 “아쉬움 딛고 목표 향해 철저히 준비할 것”



- ▲ “분열 정치”·“반헌법적”... 與, ‘통일부 폐지’ 이준석 맹공 /사진 뉴스스
- ▲ 육군 응급 의무후송헬기, 착륙 중 불시착... 5명 병원 이송